

『難經』의 診脈 大法에 관한 고찰

¹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교수 · ²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대학원생
장우창^{1*} · 김윤아²

A Study on the Great Principle of Pulse Diagnosis in the 『Nanjing』

Woochang Jang^{1*} · Yuna Kim²

¹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²Graduate Student at Dept. of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ystem, principle, and fundamentals of the great principle of pulse diagnosis in the 『Nanjing』.

Methods : The system, principle, and fundamentals of pulse diagnosis in the 『Nanjing』 were examined within the book's description framework and logical structure in light of its relationship to the 『Huangdineijing』. Previous studies that follow pulse diagnosis of 『Nanjing』 and 『Wangshuhe Maijue』 were referenced.

Results & Conclusions : The structure of pulse diagnosis in the 『Nanjing』 is systematically organized under the principle of the three positions and nine indicators as the great principle to which the yinyang and five viscera pulse theories are included. The great principle of the three positions and nine indicators is consisted of a system that allows for a multiple and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wherein the theories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are interweaved within the pulse diagnosis system, which is comprised of a great principle and particular principles. The theory follows that of the three yin three yang theory of the five circuits and six qi, its principles manifesting as the three positions and nine indicators and integration of pulse and symptoms.

Key words : Nanjing(難經), pulse diagnosis(診脈), three positions and nine indicators(三部九候), three yin and three yang(三陰三陽), Wangshuhe Maijue(王叔和脈訣)

* Corresponding author : Woochang Ja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 82-2-961-0735, E-mail : jangchang@khu.ac.kr, Tel : 02) 961-0735,

Received(November 4, 2020), Revised(November 9, 2020), Accepted(November 9, 2020)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黃帝八十一難經』(이하 『難經』으로 간칭함)은 전국 시대 秦越人 扁鵲의 소작으로¹⁾ 의학의 경전으로 추앙받는 저작이다. 이 책은 특히 診脈과 鍼法을 중시한 우리나라에서 예부터 존중을 받아 깊고 오랜 영향을 미쳤음이 허준의 『東醫寶鑑』에 잘 나타나 있다. 『동의보감』을 대표하는 五輸穴 중심의 五行虛實補瀉鍼法은 실로 『難經』의 그것을 거의 원형 그대로 전하고 있다. 『동의보감』은 또한 診脈과 辨證論治 특히 五臟辨證 방면에서도 『난경』의 五臟脈法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난경』의 학술이 지니는 경전적 지위와 임상적 가치를 공인하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난경』과 『王叔和脈訣』(이하 『脈訣』)의 진맥 체계를 기준으로 金元四大家 이래 임상 의학을 종합한 『醫學入門』, 『壽世保元』 등의 시대가 저물고 清代 이후로 근대적 기풍이 싹터 소위 辨證論治 모델이 등장하면서 『난경』의 診法이 해체되어 분리 수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현대의학의 득세와 점유에 따라 전통적인 진단 분야가 위축되면서 診法 이론이 홀시되기도 하고 현대 과학에 밀려 왜곡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경』의 진법 체계는 큰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그 첫째는 내부의 도전으로서 脈法과 脈理를 제쳐두고 脈象만 추구하는 단순한 진맥관이 그것이다. 이러한 풍조는 간편함과 간결함으로 세간에 크게 유행하였으나 마치 증상과 처방을 곧바로 연결하는 풍조처럼, 하나의 맥과 하나의 처방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부추겨 진맥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하고 실제적인 접근에 큰 걸림돌을 조성한 것도 사실이다. 외부의 도전으로는 현대과학의 물질적 세계관을 들지 않을 수 없다. 脈은 形質을 뛰어넘는 ‘元氣’요 ‘天真委和之氣’라는 것이 『내경』과 『난경』 이래 진맥 이론의 근거이고 출발이다. 한의학의 세계관을 어떻게 현대과학의 세계관과 조화시켜 살아 있는 한 의학을 세워나가야 하느냐는 또한 시대의 과제가 아닐 수 없겠으며, 이 연구는 『난경』의 관점은

무엇이냐는 문제로 돌아가 보고자 하였다.

현대 학문이 분과별로 쪼개어 있다 보니 기초와 이론이 나뉘고 그 안에서 또 각 과로 나뉘어 연구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항시 전체를 놓치는 폐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내경』, 『난경』과 같이 전체성을 추구하는 분야에서 더욱 그런 폐단은 심각한 왜곡과 오해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논자 역량의 태부족에도 불구하고 필요의 강압에 못 이겨, 『난경』 진법이 지니는 전체적인 면모를 탐구하여 보고자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 자료로는 무엇보다 『내경』과 『난경』 그 자신을 들 수 있겠다. 다음으로 『난경』의 진정한 계승자인 『王叔和脈訣』(이하 『脈訣』)을 빼놓을 수 없다. 『난경』과 『맥결』 연구를 통하여 의학 연구의 새 장을 연 金代 사람 張元素의 연구는 오늘날 실로 소중한 자료이다. 『醫學入門』, 『壽世保元』, 『醫學綱目』 등은 또한 『난경』의 진법 논리를 기반으로 실제 임상을 종합하는 실제 정황을 볼 수 있는 충실한 자료이다. “黃帝와 岐伯이 처음 근원을 열어 『내경』을 지음으로부터 扁鵲이 물길을 퍼올려 『난경』을 術하니”²⁾라고 말하여 扁鵲을 軒岐의 성인과 같은 반열로 평가한 許浚의 『纂圖方論脈訣集成』과 『東醫寶鑑』은 의지할 만한 자료의 보고이다.

『난경』의 주석으로 滑壽의 『難經本義』³⁾ 등 여러 주석을 참고하였다. 특히 明代 사람 張世賢의 『圖注難經脈訣』⁴⁾은 『난경』과 『맥결』을 나란히 한곳에 주석함으로써 본 연구가 지향하는 診法의 체계와 종합이라는 주제에 가장 근접한 연구방식을 보여주고 있어 상당한 참고가 되었다. 현대 자료로 臺灣에서 나온 黃維三의 『難經發揮』⁵⁾ 등 또한 현대적 연구 경향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우리나라 『난경』 연구로서 중요한 주석을 모으고 관련 연구 결과를 개괄한 윤의 『난경연구집성』⁶⁾은 고급의 관련 연구

1) 劉凱, 李毅. 初探『難經』對脈學的學術貢獻. 長春中醫藥大學學報. 2006. 22(4). p.1. “故『難經』初名『黃帝八十一難經』, 傳爲春秋時期秦越人(扁鵲)所著.”

2)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출판국. 2005. p.568. “粵自軒岐始開源, 而內經作, 扁鵲挹其流以述難經.”

3) 윤장열, 이남구, 김선호 편역. 滑壽 著. 難經本義. 대전. 주민출판사. 2003.

4) 張世賢 編. 王叔和 著. 圖注難經脈訣. 台南. 大學書局. 1977.

5) 黃維三 著. 難經發揮. 台中. 中國中醫藥學院出版組. 1990.

를 개괄 가능케 하는 유용한 자료이다. 『난경』 진법의 기초로서 陰陽五行에 대한 관점은 박의 『황제내경소문주석』⁷⁾, 『황제내경소문운기칠편주석』⁸⁾의 영향을 받았다. 그 외 국내 연구로 몇 편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었다.

“難經”을 표제어로 검색되는 현대 국내의 『난경』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역시 분과별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五輸穴⁹⁾, 虛實補瀉¹⁰⁾ 및 瀉南補北¹¹⁾ 등의 鍼灸輸血 관련 연구가 주종을 이루며 드물게 診法¹²⁾, 五臟脈法¹³⁾, 陰陽脈法¹⁴⁾, 五行生剋¹⁵⁾, 奇經八脈¹⁶⁾ 등 주제의 연구가 보인다.

현대 중국의 관련 연구는 상당히 많은데 참고한 것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元氣 및 升降 관련 주제로 徐의 基于全息理論的難經脈診“獨取寸口”分析¹⁷⁾, 李 등의 從元氣升降角度析識脈象之理¹⁸⁾, 劉의

淺析『難經』中的整體觀¹⁹⁾, 劉 등의 『黃帝內經』中氣機升降理論思想的探討²⁰⁾ 등을 참고하였으며, 『난경』 진법의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 李의 『難經』脈診理論貢獻探析²¹⁾, 宋 등의 『難經』對人之平脈的認識²²⁾, 翟의 從脈法看『傷寒雜病論』與『難經』的學術關係²³⁾ 등을 참고하였다.

獨取寸口的 주제와 관련하여 郭의 論『難經』獨取寸口脈法的學術內涵. 時珍國醫國藥²⁴⁾, 王의 從『內經』『難經』『傷寒論』『金匱要略』『脈經』看獨取寸口診法的淵源與發展²⁵⁾, 李 등의 初探『難經』對脈學的學術貢獻²⁶⁾, 周 등의 關於『難經』獨取寸口的學術意義探析²⁷⁾ 등을 참고하였고, 三部 주제와 관련하여 徐 등의 寸口脈三部分屬理論與臨床應用²⁸⁾을 참고하였으며, 脈證合參 주제와 관련하여 姜의 司內揣外辨證觀淺析²⁹⁾, 馬 등의 淺談司內揣外辨證觀³⁰⁾ 등을 참고하였다.

陰陽脈法 주제와 관련하여 基于陰陽理論分析『難經』脈法與人迎寸口脈法的關係及應用³¹⁾, 全의 『難經』

6) 김용진 윤창열 편저. 난경연구집성. 대전. 주민출판사. 2007.
7) 박찬국 역주. 황제내경소문주석. 파주. 집문당. 2005.
8) 박찬국 역주. 황제내경소문운기칠편주석. 파주. 집문당. 2009.
9) 김영운. 난경 수혈론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정보학회지. 2009. 15(1). pp.11-55., 안철우 외6인. 『영추』, 『소문』, 『난경』에 나타난 오수혈의 개념에 대한 고찰. 대한약침학회지. 2008. 11(1). pp.198-199.
10) 윤종화 외2인. 난경의 장부허실에 따른 침구보사법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의학회지. 2001. 18(6). pp.240-249., 박은주, 조명래. 오행침법의 운용에 대한 난경 「육십구난」과 「칠십오난」의 비교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1. 18(6). pp.250-263.
11) 김현경, 강정수. 『난경·75난』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9. 22(4). pp.189-198., 이종무 외2인. 난경 75난을 이용한 오행침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1. 18(2). pp.123-135.
12) 남두열, 김태희. 『난경』에서 按脈의 輕重에 따른 오장배속방법에 대한 『맥경』과의 비교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992. 13(1). p.68.,
13) 송미령, 김용진, 윤창열. 難經中 疾病條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한의학회연구소 논문집. 1995. 3(2). pp.31-66.
14) 조학준. 『난경·58난』의 “傷寒陽虛陰盛, 陽盛陰虛”의 의미와 임상상의. 대한한의학회지. 2014. 27(1). pp.58-74.
15) 정창현. 『난경』의 오행생기이론 활용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04. 17(1). pp.28-35.
16) 백상룡, 박찬국. 난경의 기경팔맥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04. 17(1). pp.15-27.
17) 徐哲學, 騰晶. 基于全息理論的難經脈診“獨取寸口”分析. 江蘇中醫藥. 2012. 44(4). pp.3-4.

18) 李吉武, 彭万年. 從元氣升降角度析識脈象之理. 國醫論壇. 2014. 29(6). pp.9-11.
19) 劉樞. 淺析『難經』中的整體觀. 浙江中醫雜誌. 2006. 41(6). pp.316-317.
20) 劉瑞, 鮑艷學, 花寶金. 『黃帝內經』中氣機升降理論思想的探討. 世界中醫藥. 2014. 9(3). pp.299-301.
21) 李霞. 『難經』脈診理論貢獻探析.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3. 19(5). pp.489-490.
22) 宋尚晉, 阮亦, 倪鑫磊, 岳小強. 『難經』對人之平脈的認識. 時珍國醫國藥. 2014. 25(11). pp.2732-2733.
23) 翟雙慶. 從脈法看『傷寒雜病論』與『難經』的學術關係. 國醫論壇. 1987. 제2기. pp.4-5.
24) 郭文娟. 論『難經』獨取寸口脈法的學術內涵. 時珍國醫國藥. 2012. 23(7). pp.1834-1835.
25) 王慶國. 從『內經』『難經』『傷寒論』『金匱要略』『脈經』看獨取寸口診法的淵源與發展. 北京中醫藥大學學報. 1997. 20(5). pp.20-23.
26) 劉艷, 李毅. 初探『難經』對脈學的學術貢獻. 長春中醫藥大學學報. 2006. 22(4). pp.1-3.
27) 周蓉, 郭文娟. 關於『難經』獨取寸口的學術意義探析.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2. 18(10). pp.1062-1063.
28) 徐碧云, 陳偉清. 寸口脈三部分屬理論與臨床應用. 四川中醫. 2017. 35(8). pp.23-25.
29) 扈培增. 司內揣外辨證觀淺析. 山東中醫雜誌. 2011. 30(4). pp.219-220.
30) 馬勝, 扈培增, 姜建國. 淺談司內揣外辨證觀. 河南中醫. 2015. 35(4). pp.671-672.
31) 余致力, 李敏. 基于陰陽理論分析『難經』脈法與人迎寸口脈

陰陽脈法解析.³²⁾ 또 徐의 『難經』陰陽脈辨析³³⁾ 등을 참고 하였다.

五臟脈法과 관련하여 蔡 등의 『難經』與易水學派³⁴⁾, 鄭의 淺析『醫學發明』五邪相干論³⁵⁾, 岳 등의 論“內生五邪”的致病特點³⁶⁾, 楊 등의 『仁齋直指方論』“五臟所主”學術思想研究³⁷⁾, 全의 『難經』正經自病與五邪所傷解析³⁸⁾ 등을 참고하였다.

Ⅲ. 본론

1. 大法

1.1. 大法과 其法

『難經』의 體例는 唐代 楊玄操의 『黃帝八十一難經注』에서 최초로 13개 品類를 나눈 이래로 최근까지 통상적으로 脈學, 經絡, 臟腑, 疾病, 輸穴, 針刺治療의 6분류 내지 7분류법이 적용되어 이해되고 있다.³⁹⁾ 이에 대하여 元代 사람 滑壽는 “此書固有類例”⁴⁰⁾라고 지적하였으니, 본디 類例⁴¹⁾를 지니고 있다함은 『난경』이란 책이 본래 작자의 의도에 따라 일정한 분류체계에 따라 구조화된 기술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별

法的關係及應用. 中醫藥導報. 2020. 26(9). pp.68-72.

32) 全會南. 『難經』陰陽脈法解析. 安徽中醫藥大學學報. 2015. 34(5). pp.1-3.

33) 徐碧云. 『難經』陰陽脈辨析.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3. 19(10). p.1142.

34) 蔡超產, 孫鴻昌, 李敏. 『難經』與易水學派.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16. 14(21). pp.37-39.

35) 鄭齊. 淺析『醫學發明』五邪相干論. 中華中醫藥雜誌. 2013. 28(4). pp.925-926.

36) 岳曉莉, 秦林, 騰佳林, 魏曉廣, 姜萍, 張昶穎. 論“內生五邪”的致病特點. 山東中醫藥大學學報. 2008. 32(3). pp.193-195.

37) 楊威, 王霜, 屈仲, 孫紅, 張宇鵬, 于崢. 『仁齋直指方論』“五臟所主”學術思想研究.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20. 26(2). pp.148-151.

38) 全會南. 『難經』正經自病與五邪所傷解析. 雲南中醫藥學院報. 2016. 39(2). pp.40-42.

39) 金용진 윤창열 편저. 난경연구집성.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p.131-134.

40) 陳夢雷等編. 滑壽著. 扁鵲難經(이부전록 제2책).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1387.

41) 類例는, 類는 品類 즉 분류체계를 말하고 例는 體例 즉 서적의 기술 형식을 뜻한다.

기술 형식을 따라 연구할 때에 주의할 점은 유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따라 분석적 고찰을 진행하는 동시에 전체를 관통하는 총괄적인 원리, 원칙의 파악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滑壽는 이점을

“나아가 전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였을 때 『난경』의 작자가 품류별 기술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한 기획 의도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다.”⁴²⁾

라고 지적하여 『난경』 연구에 있어 전체 大義 파악을 중심으로 개별 지식과 상호 연결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난경』全书를 보았을 때, 본문 곳곳에서 진리, 모형, 방법 등을 뜻하는 ‘法’이란 글자를 만날 수 있다. 다음은 6분류법에 따라 『난경』에 보이는 ‘法’자의 용례를 도기한 것이다.⁴³⁾

표1. 『난경』의 ‘法’字 용례⁴⁴⁾

분류	주제	조번	원문
1~22	論脈	1	以決五臟六腑死生吉凶之法 故法取於寸口也
		3	過者, 法曰太過, 減者, 法曰不及.
		4	脈有陰陽之法, 是陰陽之法也
		14	治損之法, 此治損之法也.
		16	各自是其法,
		18	上部法天, 中部法人, 下部法地, 其外痼疾同法耶. 左右表裏, 法皆如此.
21	此大法		
23~	論經絡		

42) 陳夢雷等編. 滑壽著. 扁鵲難經(이부전록 제2책).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p.1387. “又全體之學 所不可無者 此記者 以類相從 始終之意 備矣”

43) 金용진, 윤창열 편저. 난경연구집성.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132.

44) 柳長華 主編. 王九思等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29			
30~47	論臟腑		
48~61	論病	49	此五邪之法也.
		54	與七傳, 間藏同法也.
		56	此五積之要法也.
		57	此五泄之要法也.
62~68	論穴道	65	所出爲井, 所入爲合, 其法奈何.
69~81	論鍼法	78	補瀉之法

18년에서 『素問·三部九候論』을 인용하여 말한 “法天, 法地, 法人”을 보면 『난경』에서 말하는 診法의 法 개념이, 天人相應의 뜻에 따라 法을 自然에서 取象하는 『내경』의 法象의 방법론에서 취해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3년에서 診法의 時단으로서 음양의 升降 이상에 따른 平脈과 病脈을 상대적으로 규정하면서 “過者, 法曰太過, 減者, 法曰不及.”⁴⁵⁾이라고 한 ‘法曰’의 표현을 보면, 『素問』 運氣篇에 보이는 바 음양의 平衡과 失調라고 하는 氣機 升降의 太過不及 개념이 차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빈도수 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之法’(4년, 14년, 49년, 56년, 57년, 78년)으로, 이는 개별 진법들을 무슨 무슨 法으로 정의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그에 비하여 이미 정의된 法을 인용할 때에는 특정한 法을 지칭하는 뜻으로 ‘其法’(16년, 65년)이라 칭함을 볼 수 있다. 그 외 ‘同法’(18년, 54년)이란 표현 역시 동일한 法을 準用한다는 뜻이므로 이상 ‘之法’, ‘同法’ 등의 표현은 모두 ‘其法’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별도로 ‘大法’이란 표현이 21년에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滑壽가 “謝氏曰 按本經答問 詞意不屬 似有脫誤”⁴⁶⁾라고 하여 탈문이 있거나 오류라고 한 이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뜻을 풀이하지 않았다. 그런데 『難經集注』에서 北宋 사람 丁德用은 “此是五藏各主其形脈 故言大法也”⁴⁷⁾라고

하여 ‘오장이 주관하는 形證과 脈氣를 언급하였으므로 大法이 된다’는 해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설명은 21년에서 형증과 맥기의 相應과 不應으로 死生을 決하는 진법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21년만을 놓고 보면 영똥한 답일 수 있지만, 21년 보다 한참 앞인 16년에서 丁德用의 답변 내용과 일치하는 오장의 形증 맥기에 관한 기술이 발견되는 것을 놓고 보면 丁德用이 16년의 내용과 관련하여 21년을 해석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한다. 그런데 16년의 질문에는 “脈有三部九候, 有陰陽, 有輕重, 有六十首, 一脈變爲四時. 離聖久遠, 各自是其法, 何以別之.”⁴⁸⁾라고 하여 질문에 其法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음이 눈에 띈다. 만약 丁德用의 설명을 좇아 16년의 ‘其法’을 21년의 ‘大法’와 연결하여 보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21년 이상에서 보이는 다양한 其法들을 21년의 大法과의 연관 하에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1.2 脈有와 經言

21년은 일부 학자에서 출입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楊玄操와 滑壽 이래 診脈을 논한 診法 품류의 끝으로 인정되는 조문이다. 논자는 21년의 결어 ‘此大法’이 1년에서 21년에 이르는 診法 品類 전체의 결어로서, 16년의 ‘其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獨取寸口, 以決五臟六腑死生吉凶之法”⁴⁹⁾까지 올라가 이상의 전체 내용을 총괄한 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此大法’은 상위에서 諸法을 총괄하는 大法이 있고 하위에 각각의 其法이 존재하므로, 진맥에 있어 其法을 적용할 때 더 큰 차원의 상위법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其法을 버리고 大法을 취해야 할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1년에서 21년까지 診脈의 諸法과 그 總括로서의 大法이 총체적으로 논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

45)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p.13-14.

46)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편역. 滑壽 著. 難經本義.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116.

47)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62.

48)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p.45-46.

49)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3.

나의 증거를 들 수 있다. 이는 21년까지 집중되어 보이는 ‘脈有’로 시작하는 조문의 존재이다. ‘脈有’로 시작하는 조문들은 奇經八脈을立法한 27년 하나를 제외하면 8개 조문이 모두 1년에서 21년의 診法 부분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들이야말로 그 자체로 하나의 法을 천명한 것으로서 大法의 핵을 이루는 其法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脈有’라는 기술형식에 담고자 하여, ‘진맥에 이러한 法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脈有’ 외의 『난경』의 기술 형식을 살펴보면, ‘脈有’로 시작되는 조문들 외에 ‘經言’으로 시작되는 조문들 그리고 머리말 없이 바로 시작되는 조문들의 3가지 유형으로 대별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 방법은 『난경』의 記者가 일면으로 진법의 체계를 구성하면서 일면으로 新法(난경)과 舊法(내경)의 관계를 조정할 이중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용한 형식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脈有’로 시작하는 조문들이 脈法에 이러한 것이 있음을 선언하여 『난경』의 신법을 규정하는 의미를 지닌다면, ‘經言’은 經文의 의미를 『난경』 大法에 따라 조정,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구법과 신법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머리말이 없는 조문들은 『난경』의 自說들로서 신법과 구법 사이에 간극이 크거나 모순이 있을 경우에 『난경』 스스로 立論하는 형식을 통하여 大法 체계의 정합성과 완결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2.에서 보면 고래로 『내경』과 비교되는 『난경』 고유의 논리들 즉 8년의 腎間動氣, 9년의 遲數으로 寒熱을 보는 설, 10년의 1脈10變의 설 등이 모두 머리말이 없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經言’이라 된 것들은 일부 現傳하는 『내경』에서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7년의 「至眞要大論」, 11년의 「五十營」, 12년의 「九鍼十二原」, 13년의 「邪氣藏府病形」 등 대체로 지금도 볼 수 있는 것들로서 익히 연구를 통하여 알려졌듯이 『내경』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내경과 『난경』의 同異處는 『난경』 記者가 大法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經文을 조정하고 재해석한 자취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⁰⁾⁵¹⁾

표2. 『난경』 조문의 기술 층위

조번	大法	脈有	經言	自說
1	獨取寸口	十二經皆有動脈, 獨取寸口, 以決五臟六腑死生吉凶之法, 何謂也.		
2	陰陽	脈有尺寸, 何謂也.		
3		脈有太過, 有不及, 有陰陽相乘, 有覆有溢, 有關有格, 何謂也.		
4		脈有陰陽之法, 何謂也.		
5	輕重	脈有輕重, 何謂也.		
6		脈有陰盛陽虛, 陽盛陰虛, 何謂也.		
7	六十首		經言少陽之至, 乍大乍小, 乍短乍長,	
8				寸口脈平而死者
9				何以別知藏府之病邪.
10				一脈爲十

50) 안 등은 『난경』의 37개소 “經言”에 착안하여 『난경』 조문과 『내경』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난경』은 오수혈과 오행 속성을 연결하여 오행의 상생상극원리를 치료에 이용하고, 『내경』에서는 오수혈의 치료를 오행과 오장에 완전히 일치시키지 않고 음양과 내외병의 표리 병소에 따라 선혈할 것을 제시하여 확연히 오수혈 치료 원칙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라고 하여 인용에 있어 원문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음을 논증하였다.(안철우 외 6인, 『영추』, 『소문』, 『난경』에 나타난 오수혈의 개념에 대한 고찰. 대한약침학회지. 2008. 11(1). pp.198-199.)

51) “『난경』의 關格 인식”에서 『내경』의 人迎氣口法이 『난경』의 三部九候法으로 통합되면서 일련의 원문 조정 작업이 개입되었음을 제시한 바 있다.(장우창, 『난경』의 關格 인식.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24(6). pp.17-19.

			變者, 何謂也.
11		經言脈不滿五十動而一止	
12		經言五藏脈已絕於內, 用鍼者反實其外,	
13		經言見其色而不得其脈	
14		脈有損至, 何謂也.	
15		經言春脈弦, 夏脈鉤	
16	三部九候	脈有三部九候, 有陰陽,	
17		經言病或有死, 或有不治自愈,	
18		脈有三部九候, 各何主之.	
19		經言脈有逆順	
20		經言脈有伏匿	
21		經言人形病脈不病曰生, … 此大法,	

1.3 陰陽 輕重 六十首 그리고 三部九候

16난은 오장의 形證과 脈象을 제시함과 아울러 脈證合參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오장변증 방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을 담고 있음에 따라 중시되어 온 조문으로서, 『동의보감』 五臟門에 의해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

면 丁德用이 21난의 ‘大法’이 곧 16난의 ‘五藏各主其形脈’을 가리킨다고 본 것도 의미 있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6난의 질문을 살펴보면 『난경』에서 大法을 입론하게 된 배경을 엿볼 수 있다. 16난의 질문은 이렇다.

“맥법에 삼부구후법이 있고, 음양법이 있고, 경중법이 있고, 같은 맥이 四時에 따라 변하는 육십수법이 있습니다. 성인이 오신 지 오래되고 멀어짐에 각각이 自派의 진법만이 옳다고 주장하니 어떤 방법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합니까?”⁵²⁾

三部九候, 陰陽, 輕重, 六十首 등을 구체적으로 脈法으로 해석하는 견해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은 滑壽가 명확하게 ‘持診之道’⁵³⁾라고 칭한 바 診法을 가리키는 것이 옳다. 『난경』을 최초로 주석한 呂廣은 이를 정확히 “言三部是一法 九候是一法 陰陽是一法 輕重是一法 六十首是一法”⁵⁴⁾라고 하여 모두 16난에서 말하는 ‘自是其法’의 法들 가운데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다. 六十首를 제외한 三部九候, 陰陽, 輕重 등 諸法은 16난 위로 1난에까지 각 난을 통하여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즉 음양은 2난과 3난에서 尺寸의 位와 浮沈의 氣로 음양을 나누어 말한 그것을 말하며, 輕重은 5난에서 “脈有輕重”이라 한 것이 분명하다. 六十首法은 失傳되어 알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難經集注』 丁德用의 주석에서 “丁曰六十首者 是十難經一脈變爲十是也.”⁵⁵⁾라고 하여 10

52)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p.45-46. “脈有三部九候, 有陰陽, 有輕重, 有六十首, 一脈變爲四時. 離聖久遠, 各自是其法, 何以別之.” ‘一脈變爲四時’의 앞에 ‘有’자가 빠졌다고 보는 설도 있다. 이는 이것도 하나의 독립된 診法으로 보자는 것인데 사실이 아니다. ‘一脈變爲四時’는 15난에 기술된 소위 四時脈을 말한 것으로 이는 독립된 診法이 아니며 五臟脈法에서 平脈과 病脈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원칙이다.

53) 윤창열, 이남구, 김선호 편역. 滑壽 著. 難經本義.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89.

54)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46.

55)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45.

난에서 “一脈爲十變者, 何謂也.”라고 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으니 이것이 옳다. 이를 ‘六十首’라 칭한 名義에 대하여 『圖注難經』에서 張世賢이 “五邪者 虛實微賊正也 相逢者 互相乘也 … 內經云六位通命門三焦 合成六十者”⁵⁶⁾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즉 左手 三部와 右手 三部에서 每部에 각기 五邪가 있는데 臟에 腑를 곁하므로 ‘6(六部) × 5(五邪) × 2(臟腑)’의 60이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靈樞·邪氣藏府病形』에 유사한 논리가 보이고 『素問·方盛衰論』 등에 그 자취가 언급된 이래 『난경』에 의해 정립된 것으로서 후대에 張元素에 의해 『醫學啓源』에서 五臟六腑十一經脈證法⁵⁷⁾으로 정립되어 李梴 『醫學入門』에서 臟腑六脈診法으로 명명되는 五臟脈法の 원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六十首法의 체계를 후대의 五臟脈法에서 찾는다면 오장변증 관련 여러 원리와 원칙을 논한 7난에서부터 三部九候 논의를 일으키는 16난 이전의 15난까지의 내용을 모두 六十首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三部九候法은, 『圖注難經』에서 “三部九候 詳見十八難中 陰陽輕重六十首 俱解見前矣”⁵⁸⁾라고 하여 三部九候와 陰陽 輕重 六十首를 나누어 말하였으니, 양자에 차이를 두었음을 볼 수 있다. 『난경』에서 三部九候는 大法으로서 其法을 포괄하므로 1난에서 三部九候를 獨取寸口한다는 선언에서 시작하여 18난에 이르러 그 원리를 상세히 제시하였다. 그 중간에 음양과 경중과 육십수의 순으로 차례로 입론하였으니 三部九候가 大法으로서 그 안에 음양법과 경중법과 육십수법의 원리와 원칙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표2.에서 증축을 이루는 음양,

경중, 육십수, 삼부구후가 바로 그 뜻이다.

이상의 大法이 지니는 대의에 착안하여 보면 21난의 의미도 더욱 명확해짐을 볼 수 있다. 즉 “人形病脈不病曰生, 脈病形不病曰死”라고 한 질문에 대하여 “然, 人形病脈不病, 非有不病者也, 謂息數不應脈數也. 此大法.”⁵⁹⁾라고 한 『난경』 기자의 해설 취지는, 이 말은 보통 맥상과 형증을 비교하는 음양법이나 경중법 상의 일반적인 차원의 논의가 아니며, 좀더 상위 차원의 원칙을 적용하여 총체적인 수준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經에서 이때 말하는 ‘脈病, 脈不病’이란 말은 일반적인 음양맥법 상의 脈象 중심의 脈法에서 볼 때 맥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不病을 말한 것이 아니며, 보다 大法인 14난의 損至法 차원의 診法을 적용하여 말한 것으로 해석해야 바른 의미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⁶⁰⁾ 이렇게 본다면 21난의 결어 ‘此大法’은, 이러한 논리가 특별히 21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맥법은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 하위의 맥법을 준용하고 상위의 맥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표명함으로써 21난까지 전체를 진맥 대법으로 규정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三陰三陽

2.1 元氣와 氣機 升降

이상 『난경』의 체계를 중심으로 진법의 대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諸說을 참고하여 『난경』에서 말하는 진맥의 원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난경』에서 元氣 개념을 제시한 이래로 이래 진맥에서 말하는 脈은 形質로서의 血脈 이상의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출발하기로 한다. 『동의보감』은 劉河間을 인용하여 “脈者 血氣之先”이라 정의하고, 『醫學入門』을 인용하여 河間이 말하는 ‘先’이 곧 “脈者 先天一氣”의 先天一氣를 뜻함을 말함으로

56) 張世賢 編. 王叔和 著. 校正圖注難經(圖注難經脈訣). 台南. 大學書局. 1977. p.13(권1).

57) 김용진 등 편역, 장원소 원저. 현토완역 醫學啓源.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p.6-47.

58) 張世賢 編. 王叔和 著. 校正圖注難經(圖注難經脈訣). 台南. 大學書局. 1977. p.26. “三部九候 詳見十八難中 陰陽輕重六十首 俱解見前矣 中一脈 胃氣也 變爲四時者 遇春夏秋冬而變見弦鉤毛石也 診法 有是數者 越人 自謂其時 離上古軒岐之聖 蓋有年矣 其後歷代名醫輩出 各執其見 立爲成法 離聖已遠 而愈失其真 果何以別其孰是而孰非乎 噫 診法 固有不同 病證 猶有可驗 有是病 有是證 而更得是脈 則庶乎其不差矣.”

59)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62.

60) 張世賢 編. 王叔和 著. 校正圖注難經(圖注難經脈訣). 台南. 大學書局. 1977. p.7. “人以脈爲主 故脈不則生 脈病則死 脈之與形 若合符節 脈病而形不病 乃脈失常度 及見代脈之類也 故知其死 形病脈不病 非脈不病 息數不應脈數 而謂不病野 其脈實病而已矣.”

써 外形 脈門을 시작하고 있다.⁶¹⁾ 즉 맥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혈관 박동의 의미 이상일뿐더러 기혈(營衛) 순환의 의미도 넘어서는 先天一氣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동의보감』은 氣血과 脈의 관계에 대하여 “榮行脈中 衛行脈外. 脈者 所以主宰 營衛而不可 須臾失也”⁶²⁾라고 하여 맥이 기혈 순환(榮衛)의 主宰者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主宰’의 이름이 곧 李梴이 말하는 ‘先天一氣’이며 『난경』의 명사로 말하면 ‘元氣’인 것이다.⁶³⁾ 이처럼 외적 현상으로서 營衛와 그 내적 주재로서 元氣의 층위를 지닌 것으로 맥을 바라보았을 때, 1난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人一呼脈行三寸, 一吸脈行三寸, 呼吸定息, 脈行六寸. 人一日一夜, 凡一萬三千五百息, 脈行五十度周於身, 漏水下百刻, 榮衛行陽二十五度, 行陰亦二十五度, 爲一周也.⁶⁴⁾

여기서 ‘脈行’이라 하였으니 血脈으로서 맥이 운행할 수 없으므로 脈行의 맥은 곧 元氣의 운행을 말한 것이 된다. 표면에서 운행하는 것은 營衛氣血의 흐름이지만 이면에서 영위의 흐름을 주재하는 것은 元氣이다. 1난은 맥의 운행을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길이의 비율로 표현하였으니 이는 春夏秋冬 四時의 시간 흐름 속에서 陰陽元氣가 升降浮沈한다는 天人相應의 세계관에 기반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난경』의 獨取寸口的 기본 원리가 『내경』 天人相應說에 기반한 것임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난경집주』 이래 널리 유행한 「漏水下百刻圖」이다.

一歲陰陽升降 會於立春 一日陰陽曉昏 會於良時 一身榮衛還周 會於手太陰 同天度一萬三千五百息 榮衛始於從中焦 注手太陰陽明 陽明注足陽明太陰 太陰

61) 진주표 주석, 허준 저. 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816.
62) 진주표 주석, 허준 저. 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816.
63) 真氣正氣與元氣(原氣)考辨. 金芳芳 蔡永敏. 中華中醫藥雜誌. 2019. 34(1)
64)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4.

注手少陰太陽 太陽注足太陽少陰 少陰注手心主少陽 少陽注足少陽厥陰 厥陰復還注手太陰 天度二十四氣 晝夜二十四時 人身經二十四條 流注與天同度 所以計一萬三千五百息⁶⁵⁾

서두에 一歲에 음양이 升降하여 춘하추동의 사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원기의 승강을 말한 것으로서 運氣篇에서 말하는 氣機 升降의 원리인 것이다. 말미에 십이경락 영위의 유주가 곧 天道의 운행과 같은 원리라고 하였으니, 겉으로 나타나는 영위 운행의 이면에는 원기음양의 승강이 있음을 지적한 표현이다. 이러한 맥의 이치를 許浚은 『찬도방론맥결집성』 발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대개 脈은 天真委和의 氣로서 生生不息의 妙用을 지닌다. …이에 陰陽 升降의 理와 血氣 動靜의 機가 다 갖추어진다.⁶⁶⁾

여기서 허준이 말하는 ‘天真委和之氣’란 표현은 南宋 사람 劉開의 『脈訣理玄秘要』에 보이는 것으로⁶⁷⁾ 『소문』에서 『난경』을 거쳐 『맥결』로 이어지는 脈理 연구의 結晶을 표명한 것이다. 즉 ‘天真’은 곧 『소문』에서 말하는 天真⁶⁸⁾ 바로 그것이며, ‘委和’는 곧 『난경』에서 말하는 元氣이다.⁶⁹⁾ 元氣는 先天의 眞水에서 初生하는 元氣로서 木을 향하되 水에서 떨어지지 않아 陰陽 沖和의 성질을 지니는 氣이므로 初生하는 木氣의 이름을 빌어 ‘委和’라 표현한 것이다.⁷⁰⁾ 허준에 따르면, 이처럼 맥이 원기의 심층과

65)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5.
66) 金公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568. “蓋脈者, 天真委和之氣, 有生不息之妙, …於是陰陽升降之理, 血氣動靜之機, 悉具焉.”
67) 鄭金生 主編. 劉開 撰. 脈訣理玄秘要(海外回歸 中醫善本古籍叢書1).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131. “夫脈者天真委和之氣也.”
68) 박찬국 역주. 황제내경소문주석. 파주. 집문당. 2005. p.1. “上古天真論 第一”
69) 최는 元氣가 沖和之氣, 造化之機로서의 특징이 있음을 설명하였다.(최동현. 삼초와 원기, 진액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p.22-25.)

영위의 표층을 지니므로 그 표현에서도 두 형식을 지니게 된다. 즉 맥의 근원은 원기로서 여기에는 陰陽升降之理가 담겨 있으며 맥의 흐름은 氣血로서 여기에는 血氣動靜之機가 나타난다는 것이다.⁷¹⁾

2.2 六部와 三陰三陽

맥의 본원이 곧 원기로서 맥은 원기가 음양의 승강으로 표출되는 것이라면 진맥의 근본 원리 또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8난은 『난경』 스스로 寸口脈法의 기본 원리를 표명한 것이다.

脈有三部，部有四經，手有太陰陽明，足有太陽少陰，爲上下部，何謂也。

然，手太陰陽明，金也，足少陰太陽，水也，金生水，水流下行而不能上，故在下部也。足厥陰少陽，木也，生手太陰少陰火，火炎上行而不能下，故爲上部。手心主少陽火，生足太陰陽明土，土居中宮，故在中部也。此皆五行子母更相生養者也。

脈有三部九候，各何主之。

然，三部者，寸關尺也。九候者，浮中沈也。上部法天，主胸以上至頭之有疾也，中部法人，主膈以下至臍之有疾也，下部法地，主臍以下至足之有疾也。審而刺之者也。⁷²⁾

여기서 “五行子母更相生養者也”라고 하여 오행의相生 논리로 요약하였으나 위에서 部有四經을 설명한 것을 보면 표층인 영위경락 층위에서 보면 이면의 肺金을 원천으로, 표층에서 手太陰肺經에 더하여

手陽明大腸經을 경락 表裏의 습관계로 묶고 있으니, 이면의 오행과 표면의 음양이 동시에 적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래에서 『소문·삼부구후론』을 인용하여 三部의 의미를 앞서 설명한 삼부사경에서 그치지 않고 삼부구후 즉 “上部法天，主胸以上至頭之有疾也，中部法人，主膈以下至臍之有疾也，下部法地，主臍以下至足之有疾也。”라고 보충하여 설명한 것도 주의를 요한다. 여기서 三部의 의미를 단순히 형체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 심상치 않게 보는 견해가 많으나, 『난경』의 元氣說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심장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18난 서두에서 이미 三部四經의 論法을 말함으로써 내의 장부와 외의 경락이 착중하는 형식의 六部 모델을 입론한 상황에서 內外에 더하여 상하의 三部를 말하였으니, 三部에는 四經의 의미뿐 아니라 三焦元氣의 의미가 적용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즉 18난의 三部說은 내의 오행과 외의 음양이 합함에 있어 三部를 貫流하는 三焦原氣에 의하여 이면의 五藏元氣와 표면의 陰陽經氣가 접합되고 있음을 표명하고자 立論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論法은 8난에서 논구한 바 경기의 근원이 腎間動氣(五藏元氣)이며 오장육부 本源之氣(五藏元氣)는 三焦原氣에 의해 三部를 따라 지엽인 경락으로 수송된다는 의미를 三部를 통해 추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⁷³⁾ 65난에서 三焦原氣가 五藏元氣를 경락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더욱 상세하게 말하여 “然，臍下腎間動氣，人之生命也，十二經之根本也，故名曰原，三焦者，原氣之別使也，主通行三氣，經歷於五藏六府。”⁷⁴⁾라고 하였으니, “三焦者，原氣之別使也.”라는 말은 즉 삼초가 五藏元氣를 경락에 특별히 수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18난 삼부의 설은 후인의 三焦辨證의 의미에 가까운 것이 된다. 실제로 『난경』의 진법을 충실히 계승한 것

70) 박찬국. 황제내경소문운기철편주석. 집문당. 서울. 2009. p.139. “木曰柔和”

71) 장우창. 『찬도방론맥결집성』의 장원소 「진맥입식해」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 32(1). p.11. “天真造化之氣로서의 맥은 陰陽渾然의 一氣로서 음양이 미분한 상태의 원기요 진기인 맥의 심층을 이루어 혈기의 승강을 고통한다면, 맥의 표층은 혈기로 분화하여 영위의 내외 순환으로 구체화하여 출입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이 맥에는 내로 오장의 음양승강이 추가 되어 體를 定한다면 외로 경락의 氣血內外가客气 되어 用을 운영하는 陰陽氣血의 主客相승의 이치가...”

72)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p.52-54.

73)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22. “八難曰，寸口脈平而死者，何謂也。然，諸十二經脈者，皆係於生氣之原。所謂生氣之原者，謂十二經之根本也，謂腎間動氣也。此五藏六腑之本，十二經脈之根，呼吸之門，三焦之原，一名守邪之神。故氣者，人之根本也。根絕則莖葉枯矣。寸口脈平而死者，生氣獨絕於內也。”

74)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126.

로 알려진 華佗 『中藏經』에 의해 三焦辨證이 구체화하는 것을 보면 『난경』 三部說에 이미 삼초변증의 원리가 내재하여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⁷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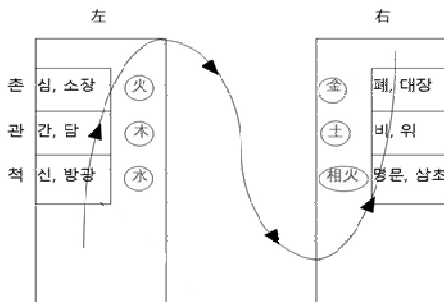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난경』 18년의 의미를, 내의 오행오장 원리와 외의 음양경락 원리 그리고 상하의 삼부삼초 원리가 중횡으로 錯綜·連環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동의보감·外形·脈』의 「六脈陰陽錯綜」이다.

(1) 左尺水生 左關木 左關目生 左寸火 左寸火接 右尺火 右尺火生 右關土 右關土生 右寸金 右寸金生 左尺水生 生之意 不絕 有子母之親也(入門).

(2) 左寸火剋右寸金 左關木剋右關土 左尺水剋右尺火 左剛右柔 有夫婦之別也(入門).

(3) 左手屬陽 右手屬陰 左寸君火 以尊而在上 右尺相火 以卑而在下 有君臣之道也(入門).⁷⁶⁾

표3. 六部 五行相生圖



1절은 18년에서 말한바 左尺水에서 원기가 생하여 右寸金에서 마치고 다시 左尺으로 돌아가며 從而復始하는 五行의 子母更相生養 논리를 그대로 기술한 것이다.(위 표3. 참고) 2절은 종적인 상생 원리를 근본으로 左手 三部와 右手 三部가 횡적으로 상극

원리에 의해 묶여 있음을 표명한 것이다. 이를 ‘夫婦之別’로 비유하였으니 上部에서 左心과 右肺, 中部에서 左肝과 右脾, 下部에서 左腎과 右命門이 左剛右柔으로 음양속성이 다름에도 마치 부부가 하나로 합하는 것처럼 서로 합하여 上焦, 中焦, 下焦의 三元之氣⁷⁷⁾를 이루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3절은 “左手屬陽 右手屬陰”이라 하였으니 표층 영위음양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경락 영위의 윤행을 통하여 인체 六氣의 변화가 표출되므로 左寸에서 君火를 말하고 右尺에서 相火를 말하였으니, 군화 상화뿐만이 아니라 左關의 厥陰風과 左尺의 少陰熱 그리고 右寸의 陽明燥와 右關의 太陰濕 모두가 내의 肝과 腎 그리고 肺와 脾에서 올라온 밖의 가지에 해당하여 영위 음양의 변화가 경락을 통하여 六氣로 표출됨을 시사하고 있다.⁷⁸⁾⁷⁹⁾

이상과 같이 18년의 소위 六部分診法은 내로 오장의 오행이 돌고 외로 경락의 육기가 도는데 삼초가 내외를 엮어매며 내외상하가 착중·순환하는 원리를 표명한 것으로, 이는 정확히 運氣篇에서 말하는 三陰三陽 氣化모델에 기반한 것임을 알 수 있다.⁸⁰⁾ 한의학에서 삼음삼양은 내의 오장과 외의 경락이 윤행하는 소위 氣機가 나타내는 時空一體의 운동변화 형식을 五運六氣라고 하는 天地運動을 빌어 象數의 논리로 표명한 우주론이자 세계관인데, 진맥의 원리

75) 최는 『中藏經』이 三焦辨證의 기원이며 그 이론적 기초는 『難經』에서 온 것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中藏經』은 『難經』의 생리에 寒熱虛實 병리를 더하여 삼초변증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후대의 『千金方』, 『外臺秘要』는 『中藏經』에 처방을 추가하였고 『醫學啓源』, 『臟腑虛實標本用藥式』 등은 『中藏經』으로부터 유래한 三焦의 寒熱虛實 변증을 집대성하였다.”(최동현. 삼초와 원기, 진액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p.4-5.

76) 진주표 주석, 허준 저. 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818.

77)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88. “虞曰 經云 右爲命門 元氣之所繫也 脈經言 與三焦爲表裏 三焦又主三元之氣”

78)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20. “先立左寸心小腸 乃君火之位 次立左關肝膽 乃風木之位 次立左尺腎與膀胱 乃寒水之位 次立右寸肺大腸 乃燥金之位 次立右關脾胃 濕土之位 次立右尺命門三焦 乃相火之位 凡此六位之脈 皆循天而右行.”

79) 六氣의 변동에서 오직 火만은 “火爲元氣之賊”이라 말하는 바 병 됨이 많고 크므로 그 다스림의 요점이 상하가 균화를 따르는 데 있으므로 “左寸君火 以尊而在上 右尺相火 以卑而在下 有君臣之道也”라고 하여 절대적 복명을 요구하는 군신관계에 비유하였다. 진맥에서 보면 이는 우척과 좌촌의 太過不及을 비교하여 우척의 변동을 더욱 중시하는 관점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0) 박찬국. 음양과 오행의 관계. 대한원전외사학회지. 1994. vol.8. p.27. “모든 만물은 모두 음양오행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오행은 내부 인체의 변화에 그치고 ... 다른 사물에 영향을 미치려면 氣로 변하여 음양적 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육기이다.”

또한 정확하게 이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찍이 박은 삼음삼양과 음양오행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해설한 바 있다.

“사물의 변화는 크게 내와 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음양과 오행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즉 사물은 厥陰風木, 少陰君火, 太陰濕土, 少陽相火, 陽明燥金, 太陽寒水の 변화를 겪는데, 여기서 곁음 소음 태음 소양 양명 태양은 외적인 변화를 발한 것이고, 풍목 군화 습토 상화 조금 한수는 내적인 변화를 말한 것이다.”⁸¹⁾

삼음삼양 이론모델이 인체에 적용되었을 때 관건이 되는 문제는 보이는 외의 現象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내의 源泉을 추론해야 한다는 점이다. 외적 변화는 내적 원천과 심지어 그 성질이 상반될 때가 많은데 현상 세계의 변화에 익숙한 우리의 인식은 이러한 모순을 뛰어넘어 변화의 본체를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렵다. 즉 맥이란 만져지는 것을 통하여 만져지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 만져지지 않는 것의 성질은 심지어 만져지는 것의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모순의 논리는, 박의 설명을 빌자면,

“내부적 오행변화와 외부적 음양현상은 서로 상반되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바로 이렇게 모순되는 자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⁸²⁾

라는 말로 표현된다. 즉 부분적 모순 자체가 큰 수준의 조화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큰 조화는 부분적으로 모순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과 조화가 함께하는 현상세계의 궁극치를 고인은 妙하다고 표현하였다. 허준이 『찬도방론맥결집성』 발문을 통하여 “脈道玄微, 蘊奧難明”라고 털어놓은 것도 같은 뜻이다. 玄微는 논리적 인식을 뛰어넘는 궁극

의 세계에 닿아있다는 뜻이고, 難明은 이성적 추론만으로 다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精思妙悟, 默識心通”의 공부를 요한다고 하였으니, 妙處를 깨닫는 정밀한 사유(精思)로 논리적 인식을 초월하며, 이성적 추론을 그치는 말 없는 깨달음(默識)으로 나아가 心眼을 연다는 것이다.

3. 三部九候

3.1 三部九候 大法 체계

『王叔和脈訣』은 『난경』의 진맥 대법을 충실히 계승, 발명함으로써 진법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책이다. 표4.는 『맥결』의 진법 체계에 대한 장원소의 설명으로서, 전적으로 『난경』의 논리에 기반하여 구성된 것임을 볼 수 있다.⁸³⁾

표4. 張元素에 의해 표명된 『난경』 맥법 체계와 맥리

脈法	난경	張元素 원문	脈理	
삼부구후	음양	1, 18	入式總包五臟及諸脈法, 婦人小兒	總包
		2	察色觀脈, 左陽升而不升, 謂之不及, 右陰降而不降, 謂之太過.	陰陽升降
		19	體本陰陽, 借言男女, 故爲同斷之說	陰陽逆順
		8	命門與腎, 水火之別, 故言審趨	水火
	경중	5	以此推排 具五難輕重之說	輕重
	음양	3	關前關後(陰陽) 三難說之詳矣	陰陽
육십수	14	至數多少, 十四難以稱之	遲數	
	15	脈之形象, 十五難具載之,	五臟脈象	
	16	遲冷數熱, 乃臟腑汗下,	辨證治法	

원문은 장원소의 원문 순서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배열한 것이다. 원문 관련 『난경』 조문 번호는 대체로 원문에 지시된 것을 따른 것이다. 모든 조문

81) 박찬국. 醫와 易의 同異. 고 덕산 박찬국교수 서거 10주기 추모 문집. 문집발간 및 학술세미나 준비위원회. 서울. 2019. pp.334-335.

82) 박찬국. 음양과 오행의 관계. 대한원전전사학회지. 1994. vol.8. p.28.

83) 장우창. 『찬도방론맥결집성』의 장원소 「진맥입식해」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19. 32(1). pp.2-3.

이 21년 이하의 것들로 되어 있으며 맥법 관련 주요 조문들을 망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좌변 맥법의 표제들은 원문과 그 의의를 참고하여 논자가 설정한 것이다. 이를 총괄하여 보면 『난경』의 맥법이 상위의 총법인 삼부구후가 하위의 음양맥법과 오장맥법을 아우르는 형식으로 설계되어 내오행과 외음양을 포괄하는 총괄로서 삼음삼양의 대의를 표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음양맥법은 1, 2, 8, 18, 19 등 주요 問難을 포괄한다. 3년에 대하여 “關前關後 三難說之詳矣”라고 하였는데 3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 太過不及의 병맥을 관정하는 기준과 覆溢, 關格 등으로 逆順을 판단하는 원칙을 제시하여 독립된 맥법 형식을 구비하고 있다.⁸⁴⁾ 또한 3년 關前關後의 뜻에 대하여 『王叔和脈訣·診脈入式歌』에서 “關의 앞과 關의 뒤는 음양을 판단하니 병의 근원을 살피에 응함이 생생하네(關前關後辨陰陽, 察病根源應不朽)”⁸⁵⁾라고 하여 辨陰陽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그 뜻에 대하여 장원소는 2년을 결부하여

“말하자면 浮는 寸을 法으로 병이 表 및 上の 근원에 있음을 살피는 방법이고 沈은 尺을 法으로 병이 裏 및 下の 근원에 있음을 살피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尺寸의 浮沈에 대하여, 脈의 浮함에서 병이 表 및 上에 있는 상을 살피고 脈의 沈함에서 병이 裏 및 下에 있는 상을 살피니, 이것이 ‘병의 근원을 판단함에 응함이 생생하다’는 말이다. 『난경 2년』에서 말하기를 ‘陽得寸內九分而浮, 陰得尺內一寸而沈’이라고 한 것이 바로 浮沈 陰陽의 법을 말한 것이다.”⁸⁶⁾

라고 하였으니 尺寸의 浮沈을 보아 병의 表裏를 판단하는 의미로 보았다. 또한 2년과 3년의 음양맥법을 기반으로 연역한 『왕숙화맥결』 七表八裏脈에 대하여

“七表脈은 客邪가 主氣를 상한 것이니 곧 3년의 陰乘陽에 해당한다. 그 證은 身熱惡寒이니 外陽內陰인 것이다.”⁸⁷⁾

“八裏脈은 곧 3년의 陽乘陰에 해당한다. 그 證은 身涼四肢厥과 惡熱이니 外陰內陽인 것이다. 만약 但寒하여 惡熱·口渴이 없다면 이는 內外皆陰인 것이다.”⁸⁸⁾

라고 개술하였으니, 대체로 음양맥법의 목적을 張仲景으로 대표되는 三陰三陽辨證 차원에서 그 의의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년의 소위 輕重은, 16년의 질문에서 보면 삼부구후, 음양, 경중, 육십수의 순으로 말하여 일견 음양과 경중이 각각 독립된 진법으로 대비되는 듯한 인상이 있으나 張元素에 따르면 음양맥법에 부속된 일종의 持脈法의 의미로 한정되어 이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장원소는 “以此推排”의 뜻에 대하여, “此五診輕重之法也”라고 하여, 사실상 경중과 같은 의미임을 지적하였다.⁸⁹⁾ 16년에서 5년의 경중을 음양과 함께 병칭한 까닭은, 이것이 맥에서 음양 중의 음양을 미세하게 살피는 진법의 難得處로서 診脈家가 이를 학습하여 體得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많은

是察脈之浮者, 在上在表之象也, 沈者, 在下在裏之象也, 是識病之根源應不朽也. 難經曰, 陽得寸內九分而浮, 陰得尺內一寸而沈, 此之謂也.”

84)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88. “三難曰, 脈有太過, 有不及, 有陰陽相乘, 有覆有溢, 有關有格, 何謂也. 然, 關之前者, 陽之動也, 脈當見九分而浮. 過者, 法曰太過, 減者, 法曰不及. 遂上魚爲溢, 爲外關外格, 此陰乘之脈也. 關以後者, 陰之動也, 脈當見一寸而沈. 過者, 法曰太過, 減者, 法曰不及. 遂入尺爲覆, 爲內關外格, 此陽乘之脈也. 故曰覆溢, 是其真藏之脈, 人不病而死也.”

85)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67.

86)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79. “言浮者法於寸, 知病在表在上之根源也. 言沈者法於尺, 知病在裏在下之根源也. 浮沈在尺寸者,

87)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277. “七表脈者, 是客邪來傷主, 乃陰乘陽也. 其證若身熱惡寒, 是外陽而內陰見也.”

88)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278. “略說八裏, 乃陽乘陰也. 其證身涼四肢厥惡熱, 是外陰而內陽也. 但寒不熱不渴者, 是內外皆陰也.”

89)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 출판국. 2005. p.66. “凡持脈之法須子細, 用指按三部推排, 次第輕重診之. 何爲推排, 次第輕重, 謂初診脈, 各一指之下, 如一菽之重共按, 三指之下, 如三菽之重, 與皮毛相得者, 肺脈也. 如六菽之重, 與血肉相得者, 心脈也, 如九菽之重, 與肌肉相得者, 脾胃脈也. 如十二菽之重, 與筋平者, 肝脈也. 如十五菽之重, 按之至骨者, 腎脈也. 此五診輕重之法也.”

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⁹⁰⁾

五臟脈法은 14년의 遲數으로 臟腑를 분별하는 것, 15년의 오장 平脈과 病脈, 16년의 損遲法의 장부변증체계를 핵심 원리로 제시하였다. 이를 앞의 표2와 비교하면 六十首法의 핵심 원리를 제시한 10년의 一脈十變說이 거론되지 않은 특징이 있는데, 이는 기존 육십수법의 원리와 방법이 『난경』 진법 체계 안에 三部九候(18년), 五邪(49년) 등의 형식으로 이미 편입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동의보감』의 오장문을 참조해 볼 때 오장맥법은 거의 『소문』과 『난경』에 기반함을 볼 수 있다. 음양맥법이 『상한론』의 『辨脈法』, 『平脈法』 그리고 『왕숙화맥결』의 七表八裏九道脈說을 거치면서 상당한 변화와 발전을 거쳐 전한 데 비하여, 오장맥법은 『난경』 오장맥법의 원형이 장원소를 거쳐 『동의보감』에 오기까지 완전한 수준으로 전해짐을 볼 수 있다.

3.2 三部九候總看法

3.2.1 總看과 單看

『난경』에서 삼부구후는 음양맥법과 오장맥법은 물론 여타 세부적인 脈理와 脈法을 총괄하는 대법으로 규정된다. 李梴은 이러한 『난경』에서의 춘구맥법의 지위를 ‘總看法’으로 명명하고 여타 맥법을 ‘單看法’으로 명명하여 구별하였다.

세속에서 『맥결』 하나만 익히고 『맥경』을 알지 못하며, 單看法만 배우고 總看法은 알지 못한다. 실제로는上古에 진법이 3종이 있었다. …그 셋째 맥법은 홀로 寸口만을 취하여 내외로 장부를 분별하는 진법이니 浮沈(高下)으로써 身形의 병위를 정하고 오행의 생剋으로써 예후의 榮枯를 판단하며 淸濁으로써 사생의 窮通을 논하는 방법이다. 때문에 『난경』에서 이를 “獨取寸口 以決五臟六腑之生死吉凶也”라고 말하였다. 이에 『소문』과 『난경』을 주로 삼아…⁹¹⁾

이 진법 총론만을 보아서는 三法과 總看의 관계가 분명치 않으나 각론에서 其三을 ‘總看三部脈法’으로 명명하여 『난경』의 삼부구후법이 곧 총간법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허실을 결정하고 사생을 판단함이 온전히 總看法에 달려있다. 때문에 경의 뜻을 응회하여…⁹²⁾

總看의 구체적인 방법은 『동의보감』 下指法에 소개된 바이니, 寸關尺 三部와 浮中沈 三候를 곱하면 곧 三部九候가 되어 이를 순서대로 다 보는 것이 곧 總看三部九候法이다.⁹³⁾ 三部九候를 總看하는 방법은 단순하지 않아서 1지, 2지, 3지를 순서대로 촌, 관, 척에 맞추고 “上竟消息之 下竟消息之” 즉 촌에서 척의 순으로 진해 나가는 것인데, 浮按, 中按, 尋按의 순서로 浮中沈에 各診五動하여 總得四十五動을 曰平脈也라고 한다고 하였다.⁹⁴⁾ 좌우 6지로 좌우 6부의 浮中沈을 눌러가며 45動을 看하는 것이 總看의 指法인 것이다. 진단의 목적은 臟腑經絡의 소재를 찾고 陰陽表裏寒熱의 성질을 헤아리고 길흉의 예후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삼부구후총간법이란 이상 총간의 지법을 운용하는 와중에 음양 경중 육십수 등 제

91) 진주표 역해, 이천 저. 의학입문.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397. “世俗偏熟脈訣而不知脈經 專習單看而不知總看 其實上古診法有三 其一各於十二經動脈 分爲三部 候各臟腑. 其二 以氣口人迎 決內外病因. 其三 獨取寸口 以內外分臟腑 以高下 定身形 以生剋 定榮枯 以淸濁 論窮通 故曰獨取寸口 以決五臟六腑之生死吉凶也. 茲以素難 爲主. 兼採仲景及脈圖 脈經 脈訣 正傳權輿而補之. 以便初學 誦讀.”

92) 진주표 역해, 이천 저. 의학입문. 서울. 법민문화사. 2009. p.447. “此卽上古診法 其三也 決虛實 斷死生 全在總看 故融會經 意爲歌 且引證什之 業者并小字 讀之可也.”

93) 진주표 주석, 허준 저. 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민문화사. 2012. p.817. “凡初下指 先以中指 揣按得關脈 掌後高骨謂之關也. 乃齊下前後二指 是爲三部脈 前指寸口也, 後指尺部也. 若人臂長則踈下指 臂短則密下指 先診寸口 浮按消息之 次中按消息之 次重按消息之 次上竟消息之 次下竟消息之 次推指外消息之 次推之內消息之(綱目)”

94) 김공민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출판국. 2005. p.41. “雲岐子曰 九候者 浮中沈 各診五動 浮診五動 天之象也 中診五動 人之象也 沈診五動 地之象也 三部各診浮中沈三 乃三三九也 夫九候者 在天五日爲一候 在脈五至爲一候 一息之數 浮一氣十五爲天 中一氣十五爲人 沈一氣十五爲地 故一氣在上 一氣在中 一氣在下 三氣相合而成一脈 是三元也 乃氣血精故 總得四十五動曰平脈也.”

90) 남 등은 경중법 내용을 맥경과 비교하여 오장평맥은 일치하나 오장병맥은 일치하지 않음을 근거로 임상실제에서 쓰이는 맥법이 아니라 장부의 위치개념을 맥에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으로 설명하였다.(남두열, 김태희. 『난경』에서 按脈의 輕重에 따른 오장배속방법에 대한 『맥경』과의 비교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992. 13(1).p.68.)

脈法の 理를 四診의 證에 비추어 병을 審査해 나가는 과정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李梴이 “審決經絡 惟總看可憑”이라 말한 것이 바로 그 뜻이다. 李梴은 總看法의 목표를 요약한 “動靜玄機太簡明”의 自註를 통하여 밝히기를,

動靜玄機太簡明: 진맥의 理는 수요가 많고도 체계가 크며 치료의 방법은 갈래가 많으니 만약 浮沈遲數에 근거하지 않으면 손끝이 감감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할 것이다. 또한 진법에 單看하면 浮하나 總看하면 沈한 경우가 있고, 總看하면 浮하나 短看하면 沈한 경우가 있으며, 지맥이나 사맥 또한 그러하다. 요컨대 병이 어느 경락에 있는지 審證하여 판단함은 오로지 總看法이라야 가히 근거할 수 있다.⁹⁵⁾

라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단간하면 부하나 총간하면 침한’ 등의 표현은 단간법과 총간법이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즉 단간법은 특정부의 특정 候를 절개하여 보는 방법으로서, 이는 음양 경중 육십수 등 ‘脈理繁浩’한 脈理 가운데 특정 관점만으로 맥을 비추어 해석(看)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총간은 삼부구후의 전체와 各部各候의 부분을 종합하여 심사·판단(審決)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2.2 脈法과 脈理

總看法은 제반 脈法の 脈理를 三部九候 진법 안에 삼음삼양의 논리 형식으로 종합하는 기법이므로 그 안에 다양한 요소가 녹아들 수 있다. 이것이 李梴이 말하는 ‘脈理繁浩’이라는 말의 뜻이다. 맥의 理가 많다(脈理繁)는 말은 脈理의 차원에서 보면 음양 경중 육십수 등 맥법에 음양오행 원리가 침투하면서 수많은 층위의 해석을 가능케 함을 뜻한다. 또한 크다(浩)라는 말은 그렇게 다양한 脈理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삼부구후대법체계의 융통성이 크다(浩)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맥의 원리는 곧 음양오행에 불과함을 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理가 음양맥법 및 오장맥법과 결부되면서 다양한 층위를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陰陽脈法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음양은 진법 차원에서 실로 여러 층위의 뜻이 있으니 3년의 關前關後가 尺寸의 位를 음양으로 정한 것이라면, 음양의 用인 浮沈으로 음양을 정함은 2년에서 밝혔으며, 음양의 變인 病名과 예후의 判정은 4년의 逆順에서 말하였다. 이상 음양의 位와 用 그리고 常과 變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는 것이 음양맥법의 총체적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양의 다양한 차원은 원기음양의 승강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2년의 음양 승강은 최상위의 원기 차원의 음양을 가리키며, 4년 陰陽之法은 五臟平脈 차원의 음양을 가리키며, 8년의 左尺右尺은 오장 水火 차원의 음양을 가리키며, 19년 男女는 左右 승강 차원의 음양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내에서 외를 따라 원기의 층위에 따라 입론된 것임을 볼 수 있다. 3년에 이어 나오는 4년에서 『동의보감』의 소위 五臟平脈을 말하면서 ‘脈有陰陽之法’⁹⁶⁾이라 표현한 까닭은 이것이 음양 중의 음양(즉 四時五行)이 되기 때문으로 오행도 큰 차원에서 음양 원리 안에 표명됨을 지적한 것이다.

다음 龔廷賢의 논의는 삼부구후총간법 차원에서 음양맥법이 지니는 다층위의 뜻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체에 四時마다 正脈이 있고 사람마다 平脈이 있으며, 내상의 變脈이 있고 외감의 邪脈이 있으며, 重陰의 맥이 있고 重陽의 맥이 있으며, 양이 허하여 음이 올라탄 맥이 있고 음이 허하여 양이 올라탄 맥이 있으며, 양이 極하여 음이 生하는 맥이 있고 음이 極하여 양이 生하는 맥이 있으며, 하나만 홀로 보이

95) 진주표 역해, 이천 저. 의학입문.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397. “動靜玄機太簡明: 脈理繁浩 治法多端 若不憑浮沈遲數則 指下茫然 且脈有單看浮而總看沈者 有總看浮而單看沈者 遲數亦然. 要之 審決經絡 惟總看 可憑 凡脈以得中爲靜 太過而爲盛之極 不及而爲衰之極 俱謂之動 只取其動者 治之則經絡 不雜 何其簡且明哉.”

96)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p.17-18. “四難曰, 脈有陰陽之法, 何謂也. 然, 呼出心與肺, 吸入腎與肝, 呼吸之間, 脾受穀味也, 其脈在中. 浮者陽也, 沉者陰也, 故曰陰陽也. 心肺俱浮, 何以別之. 然, 浮而大散者, 心也, 浮而短澀者, 肺也. 腎肝俱沉, 何以別之. 然, 牢長者, 肝也, 按之濡, 舉指來實者, 腎也. 脾者中州, 故其脈在中. 是陰陽之法也.”

는 맥이 있고 여러 가지가 함께 보이는 맥이 있으며, 발병 초기의 맥이 있고 오래 병을 앓은 맥이 있으며, 可治의 맥이 있고 不治의 맥이 있다. 이처럼 左右 上下 表裏의 사이의 有餘와 不足이 오로지 陰陽을 분별함에 달려 있으니, 능히 陰陽을 분별할 수 있으면 맥의 대체를 알 수 있을 것이다.”⁹⁷⁾

한편 3년의 음양 부침 원리를 오장맥법의 주요 持脈法인 輕重法에 적용하면, 오장맥법 내에서 오장의 虛實을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행원리 내에 음양원리를 적용하는 의미가 된다. 5년 경중에 이어 6년에서 陰陽盛虛를 말한 것이 바로 이 뜻이다.

六難曰, 脈有陰盛陽虛, 陽盛陰虛, 何謂也.

然, 浮之損小, 沈之實大, 故曰陰盛陽虛. 沈之損小, 浮之實大, 故曰陽盛陰虛. 是陰陽虛實之意也.⁹⁸⁾

이 6년에 대하여 단순히 尺寸의 浮沈을 비교하여 上下陰陽의 허실을 보는 방법으로 보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3년과 별도로 6년을 두었고 6년을 5년의 경중 뒤에 둔 까닭은 경중법과 함께 허실(盛虛)법 활용하는 경우를 말하고자 한 것이다. 張世賢은 6년의 이러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各 經을 기준으로 말해보면, 六部마다 陰陽의 虛實이 있다. 매 部마다 가볍게 눌러 浮位에서 잡았을 때 맥이 약하고 줄었다가(損小) 무겁게 눌러 沈位에서 잡았을 때 강하고 커진다면(實大) 이를 일러 ‘陰盛陽虛’라고 말하였다. 무겁게 눌러 沈位에서 잡았을 때 약하고 줄었다가(損小) 가볍게 눌러 부위에서 잡았을 때 강하고 커진다면(實大) 이를 ‘陽盛陰虛’라고

말하였다. 『난경·6년』의 語法이 渾然하여 포괄하는 뜻이 광대하므로 학자는 반드시 세밀하게 뜻을 살펴야 할 것이다.⁹⁹⁾

이때의 음양을 구별하여 盛虛라고 하였으니 곧 오장의 허실을 말한다 뜻이다. 결과적으로 6년은 오장에서 각기 허실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맥결』 五臟歌 가운데 간장에서 微弱과 盛浮로 肝脈의 음양성허를 나누어 기술한 내용에서 그 적용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표5의 盛虛6년 참고)

표5. 『王叔和脈訣·肝臟』¹⁰⁰⁾

法·理	脈	證
輕重	三部俱弦	肝有餘
六十首	肝軟并弦本沒邪	緊因筋急有些些
	細看浮大更兼實	赤痛昏昏似物遮
溢覆3년	溢關過寸口相應	目眩頭重與筋疼
	扎時	眼暗或吐血 四肢癱緩不能行
滑澁4년	澹則	緣虛血散之 肋脹脇滿自應知
	滑因	肝熱連頭目 緊實弦沈痲癢基
盛虛6년	微弱浮散氣作難	目暗生花不耐看
	盛浮筋弱身無力	遇此還須四體癱

우선 좌변의 脈과 우변의 證을 맞추어 보도록 하였으니 그 맥만으로 병을 정하지 못하고 반드시 증과 일치해야 한다는 16년의 脈證合參 원칙이 그대

97) 李世華 等 主編, 龔廷賢 著, 壽世保元(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85. “人有四時之正脈, 有平生之常脈, 有內傷之辨脈, 有外感之邪脈, 有重陰之脈, 有重陽之脈, 有陽虛而陰乘之脈, 有陰虛陽乘之脈, 有陽極而陰生之脈, 有陰極而陽生之脈, 有獨見之脈, 有兼見之脈, 有初病之脈, 有久病之脈, 有可治之脈, 有不治之脈, 其左右上下表裏之間, 有餘不足, 惟在乎分別陰陽, 能分別陰陽, 斯可以識脈之體.”

98)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20.

99) 張世賢 編, 王叔和 著, 校正圖註難經(圖注難經脈訣), 台南, 大學書局, 1977, p.9(권1). “以各經言之 每部俱有陰陽虛實但輕手浮取之而損小 重手沈取之以實大 謂之陰盛陽虛 重手沈取之損小 輕手浮取之而實大 謂之陽盛陰虛 經語渾然 所包者廣 學者宜細詳之.”

100) 김공민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출판국, 2005, p.151-162. “三部俱弦肝有餘 目中疼痛苦虛虛 怒氣滿胸常欲叫 醫蒙瞳子淚如珠 肝軟并弦本沒邪 緊因筋急有些些 細看浮大更兼實 赤痛昏昏似物遮 溢關過寸口相應 目眩頭重與筋疼 扎時眼暗或吐血 四肢癱緩不能行 澹則緣虛血散之 肋脹脇滿自應知 滑因肝熱連頭目 緊實弦沈痲癢基 微弱浮散氣作難 目暗生花不耐看 盛浮筋弱身無力 遇此還須四體癱.”

로 적용된 것임을 볼 수 있다. ‘三部俱弦’은 5년 輕重法이 적용된 것으로서 이때는 左寸 肝部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肝軟并弦本沒邪’이라 한 것은 六十首法이 적용되어 肝部 左關을 지칭한 것이다. 아래에서 ‘溢關過寸口相應’이라 한 것은 弦脈이 左關에서 左寸까지 뻗쳐 올라감을 말한 것이다. 또한 여기서 ‘溢’을 말한 것은 3년의 覆逸 원리가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으니, 오장맥법 안에 陰陽逆順 원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아래 滑澁을 말한 것은 4년에서 “浮者陽也, 滑者陽也, 長者陽也, 沈者陰也, 短者陰也, 瀋者陰也.”¹⁰¹⁾라고 한 六脈의 음양 脈象 원리가 적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아래 微弱浮散과 盛浮는 6년 陰陽盛虛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오장맥법의 실제 운용에 있어 다양한 차원의 음양 맥법과 원리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四診合參

三部九候大法를 실제 임상에서 진단에 적용할 때 즉 ‘審決’할 때의 원칙으로서 소위 四診合參이라 알려진 내용에 대한 『난경』의 관점을 논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법 관련 부분 가운데 13년과 16년에 보인다. 16년은 삼부구후법에 속하는 내용이므로 상위에 있고, 13년은 육십수법에 속하는 내용이므로 하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먼저 16년의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十六難曰, 脈有三部九候, 有陰陽, 有輕重, 有六十首, 一脈變爲四時. 離聖久遠, 各自是其法, 何以別之. 然, 是其病有內外證.

其病爲之奈何.

然, 假令得肝脈, 其外證, 善潔, 面青, 善怒, 其內證, 臍左有動氣, 按之牢若痛, 其病, 四肢滿, 閉淋, 溲便難, 轉筋. 有是者肝也, 無是者非也.¹⁰²⁾

질문은 “각기 自派의 진법만이 옳다고 주장하니 어떻게 분별해야 하나?”라고 하여 어느 법이 옳은가를 물은 듯하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마치 동문서답처럼 들린다.

“진단의 확정은 그 병에 內外의 證이 있음으로 결정해야 한다. 가령 肝脈을 얻은 경우 그 外證은 善潔, 面青, 善怒이고 그 內證은 ‘臍左有動氣, 按之牢若痛’이며, 그 病形은 ‘四肢滿, 閉淋, 溲便難, 轉筋’이다. 이들이 있으면 간장의 病脈이 맞고 이들이 없으면 간장의 病脈이 아니다.”

‘是其病有內外證’이라 한 답변과 그 아래에서 예를 들면서 ‘得肝脈’ 등을 먼저 말한 것으로 보면 이것이 四診 가운데 診脈을 기준으로 여타 진단결과를 종합하여 진단하는 방법임을 보여준다. 먼저 ‘得肝脈’의 의미부터 살펴보자. 이에 대하여 상당 수 주석가들이 13년의 예를 따라 ‘其脈當弦而急’¹⁰³⁾으로 해석하거나 弦鉤毛石의 뜻을 그대로 따라 막연하게 弦脈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난경』의 大法를 무시한 해석으로서 옳지 못하다. 『난경』의 記者가 ‘各自是其法’이라 지적한 것이 바로 대법을 무시하고 자의적 해석을 일삼는 위험을 경계한 것이다. ‘得肝脈’은 18년에 소개된 三部九候法과 15년에 소개된 五臟病脈을 적용하여 左寸의 肝部에 太過나 不及의 병맥이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옳다. 張世賢은 정확하게 大法를 준용하여 16년을 해석하였으니, 肝部를 左關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平脈은 그 아래 15년에 보이는 ‘濡弱而長’¹⁰⁴⁾을 말하고 太過는 그에 비해 實強한 것이고 不及은 그에 비해 虛微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01)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18.

102)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46-47.

103)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29. “然, 五藏有五色, 皆見於面, 亦當與寸口, 尺內相應. 假令色青, 其脈當弦而急, 色赤, 其脈浮大而散, 色黃, 其脈中緩而大, 色白, 其脈浮濡而短, 色黑, 其脈沈濡而滑. 此所謂色之與脈, 當參相應也.”

104)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39. “春脈弦者, 肝東方木也, 萬物始生, 未有枝葉, 故其脈之來, 濡弱而長, 故曰弦. …然, 其氣來實強, 是謂太過, 病在外, 氣來虛微, 是謂不及, 病在內.”

이는 진맥하여 간의 病脈을 얻었음을 말한 것이니, 肝의 맥이 이미 간의 部에 보이는데 和平하다면 곧 平脈이므로 굳이 ‘得肝脈’이라 말할 것도 없다. 혹 太過하거나 혹 不及하므로 이를 ‘得肝脈’이라 말한 것이다. ‘內證’은 內를 볼 수 있는 것들이고 外證은 外를 볼 수 있는 것들로서 證驗할 수 있는 것들이다. 간의 脈은 淸淨하므로 ‘善潔’하고, …간의 脈이 있고 간의 診(內外證)이 있고 간의 病(病形)¹⁰⁵⁾이 있어야 간의 병이 옳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肝의 藏病에 속하지 않는다.¹⁰⁶⁾

肝의 脈이 있고, 간의 診(곧 內證과 外證)이 있고, 간의 病이 있으면 간의 병이 맞고, 앞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간의 장병과 무관하다고 말한 해석은 정확하게 ‘是其病有內外證’의 뜻을 풀이한 것이다. 따라서 ‘是’는 ‘이것’을 가리키는 지시사가 아니며 뒤에 보이는 ‘有是者肝也, 無是者非也.’의 ‘是非’에서처럼 일종의 판단사로 보아야 한다. 이상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답사 ‘是其病有內外證’을, “이것은 그 병이 내증과 외증이 있다.”는 식으로 문자를 쫓아 그대로 번역하면 문의를 벗어나게 된다. 반드시 “진단의 확정은 그 병에 내외의 증이 있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해야 정확한 해석이 된다.

肝病의 성립 요건으로 제시한 外證은 오장변증 관련 내용으로 34년에서 오장의 聲色臭味과 七神을 말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⁰⁷⁾ 內證은 18년에

서 積聚의 오장을 辨證하면서 간맥을 얻은 경우에 右脇에서 積氣를 찾는다는 ‘診在右脇有積氣’¹⁰⁸⁾ 등의 내용이 보이는 것으로 유추해 보면, 오장병에서 切診(腹診)을 통하여 해당 병과 연관된 體證을 검진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16년에서 말하는 證은 후대의 소위 病證의 의미에 가까우며 病은 病形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1.을 보면 『난경』 전서의 6개 품류 가운데 論臟腑(30~47), 論病(49~57)의 2개 품류가 오장변증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에 속하는 법으로 五邪之法(49년), 七傳(50년), 五積(56년), 五泄(57년) 등의 다양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난경』에서 五臟의 病形과 內外 證을 정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是其病有內外證’의 답변은 ‘各自是其法, 何以別之’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 것일까? 三部九候만이 옳고 나머지는 그르다는 것일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診法이건 각각의 원리, 체계에 맞는 形證 체계가 수립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실제 진단에서 脈과 證(色을 포함)이 일치한다면 진단이 성립한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실제로 13년에는 六十首法에 色脈合參의 원칙이 적용된 내용을 볼 수 있다.

十三難曰, 經言見其色而不得其脈, 反得相勝之脈者, 卽死, 得相生之脈者, 病卽自已. 色之與脈, 當參相應, 爲之奈何.

然, 五藏有五色, 皆見於面, 亦當與寸口, 尺內相應.

經言知一爲下工, 知二爲中工, 知三爲上工, 上工者十全九, 中工者十全七, 下工者十全六, 此之謂也.¹⁰⁹⁾

者, 人之神氣所舍藏也. 故肝藏魂, 肺藏魄, 心臟神, 脾藏意與智, 腎藏精與志也.”

108)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54. “人病有沈滯久積聚, 可切脈而知之耶. 然, 診在右脇有積氣, 得肝脈結, 脈結甚則積甚, 結微則氣微.”

109)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p.29-31.

105) 病은 痛苦나 기능장애가 外現한다는 의미로 소위 ‘病形’을 뜻하고, 證은 痛苦나 기능장애가 아니어서 病形이 아니나 그 病을 특정케 하는 證據를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수집하여 확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06) 張世賢 編. 王叔和 著. 校正圖註難經(圖注難經脈訣). 台南. 大學書局. 1977. p.26(권1). “此言診得肝之病脈矣. 肝脈已見於肝部 而和平 此乃平脈 不必謂得肝脈也 或太過或不及 謂之得肝脈也. 內證 見於內 外證 見於外 而可驗者也. 肝腑淸淨 故善潔 … 有肝之脈 有肝之診 有肝之病 是肝之病也 否則不係是臟病矣.”

107)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pp.83-86. “三十四難曰, 五藏各有聲色臭味, 皆可曉知與否. 然, 十變言, 肝色青, 其臭臊, 其味酸, 其聲呼, 其液泣. 心色赤, 其臭焦, 其味苦, 其聲言, 其液汗. 脾色黃, 其臭香, 其味甘, 其聲歌, 其液涎. 肺色白, 其臭腥, 其味辛, 其聲哭, 其液涕. 腎色黑, 其臭腐, 其味鹹, 其聲呻, 其液唾. 是五藏聲色臭味也. 五藏有七神, 各何所藏耶. 然, 藏

“五藏有五色，皆見於面，亦當與寸口，尺內相應。”이라고 한 것을 보면 色, 脈, 尺膚의 순으로 먼저 색과 맥의 일치 여부를 살피고 나아가 尺膚의 일치 여부를 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색진을 우선시하는 진법으로서, 일차적으로 脈과 합쳐보고 나아가 尺膚와 합쳐 봄으로써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¹¹⁰⁾ “知一爲下工，知二爲中工，知三爲上工”을 말한 것은 四診合參의 완결도와 정확성이 곧 진단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또한 오장, 오색을 말한 것을 보면 육십수법이 기본적으로 오장변증법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의학 진단의 원칙으로 『동의보감』 審病門 서두에 진단의 총칙으로 소개된 61년 神聖工巧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六十一難曰，經言望而知之謂之神，聞而知之謂之聖，問而知之謂之工，切脈而知之謂之巧。何謂也。

然，望而知之者，望見其五色，以知其病。聞而知之者，聞其五音，以別其病。問而知之者，問其所欲五味，以知其病所起所在也。切脈而知之者，診其寸口，視其虛實，以知其病，病在何藏府也。經言以外知之曰聖，以內知之曰神，此之謂也。¹¹¹⁾

61년의 해석에 있어 일반적으로 『내경』에서 색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또 ‘神’과 ‘聖’의 字意로 미루어 볼 때 ‘以內知之曰神’을 우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 역시 『난경』의 大法에 비추어 보면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¹¹²⁾

앞서 『난경』의 진법으로 16년의 脈證合參과 13년의 色脈合參을 보았는데, 대법 체계에 비추어 보면 16년의 맥증합참은 삼부구후 대법에 소속되어 육십수법에 소속된 색맥합참에 비해 상위의 법임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 61년에 따르면 색맥합참은 ‘以內知之曰神’에 해당하는 방법이고 맥증합참은 ‘以外知之曰聖’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서 나란히 병행됨을 볼 수 있다. 『난경』의 記者는 獨取寸口の 脈證合參을 기준으로 대법을 세웠으나, 원리적인 차원에서 合參의 조건을 갖추었다면 色脈合參의 內視法도 동일한 가치를 인정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앞서 말한바, 『난경』에서 『내경』의 뜻을 보완하고 재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맥의 대법으로 16년에서 제시한 脈證合參 원칙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 脈만으로 병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某脈이면 某病이라는 식의 體象과 主病을 중심으로 하는 診法이 『난경』 當代에 이미 있었으며, 『난경』은 이를 반대하여 맥만으로 병을 결정하지 못하며 반드시 病形, 病證 및 色을 두루 참고하여 일치할 때에만 진단을 확정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난경』의 診法 일반에서 診脈이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진단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診脈을 요구한다는 의미이며 진맥이 다른 四診의 판단 결과는 물론 病證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전자를 간과하는 것은 오늘날 진맥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 오류이며 후자를 간과하는 것은 오늘날 진맥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져있는 오류이다.

110) 張世賢 編，王叔和 著，校正圖註難經(圖注難經脈訣)，台南，大孚書局，1977. p.18(권1). “此謂內外相應 否則相生相勝見焉 內經曰三相應者 上合色 中合脈 下合皮膚也 … 色之與脈 當參相應 否則不相生 即相勝矣 尺之皮膚與色脈 當參相應 否則不相生 即相勝矣 聲色臭味之與色 亦當參而相應 不亦上生 相勝見焉 三者之中 知其一 而不知其二 謂之下工 知其二 而不知其一 謂之中工 上工 知下中之所不知 而三者具備 至於治病 有全生多寡之不同焉 噫 昔所謂下工者 今亦罕見.”

111) 柳長華 主編，王九思 等 輯，難經集注，北京，北京科學技術出版社，2016. pp.120-121.

112) 張世賢 編，王叔和 著，校正圖註難經(圖注難經脈訣)，台南，大孚書局，1977. p.5(권4). “難而易者 謂之巧 得其精

者 謂之工 大而化之 謂之聖 聖而不可知之 謂之神 神則望而即知 不必聞問切也 聖則望聞而知 工則望聞且問 不必切也 巧切則切脈 必兼望聞門之三者 而後知病之的也 … 所在者 見病之經也 所起者 始病之經也 如心病 因中風而得 心病爲所在 中風爲所起也 … 復因經文之言 以結上文之意也 外者 有證見於外 而可視驗也 內者 內有病 而未見外也 外則顯而易知 內則隱而難見 證見於外而知其內病者 謂之聖 病在於內 外無可驗 而能知之者 謂之神.”

Ⅲ. 결론

이상 『난경』 診脈 大法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먼저 『난경』의 體例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대법의 체계와 그 의의를 탐구하였다. 이어서 『난경』 진맥 대법으로서 三部九候法이 기반한 원리에 대하여 탐구하였으며 여기서 나아가 그것이 실제 임상에 적용될 때의 주요 원칙들에 대해 살폈다. 본고에서 주어진 역량 이상의 논의를 하다보니 허점이 한둘이 아니겠지만 미처 결과를 담아내지 못한 것이 있다. 첫째는 脈理를 고찰하면서 平脈을 다루는 것이 필수적이나 쫓아가지 못하였다. 生生不息의 氣機는 오행의 中과 음양의 和를 귀하게 여기므로 『난경』 脈理에서 언제나 平脈을 강조하여, 실제 진맥에서 다양한 수준의 평맥을 보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큰 특징이다. 나아가 脈法과 脈理의 관계를 조금 추구하였으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충분히 논구하지 못하였다. 예컨대 『난경』 내에서도 자신의 진맥 이론을 실제 진단에 적용하여 辨證論治 하는 내용이 몇 군데 보인다. 이런 부분은 맥법의 실제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고찰 결과를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1. 『난경』의 체례에는 제반 진법을 大法이 망라하는 체계적 기술구조가 반영되고 있다.
2. 『난경』의 기술형식은 『난경』이 立論한 새로운 진법(脈有)과 그것이 기반한 옛 진법(經言) 그리고 양자의 결합을 위한 보완적 논리(自說)의 3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3. 『난경』은 舊法을 陰陽輕重, 六十首로 요약하고 이를 三部九候의 大法로 포괄하였다.
4. 『난경』이 말하는 脈의 본질은 元氣의 升降으로서 인체의 장부경락 구조층위에 따라 天真元氣, 五臟元氣, 三焦元氣, 經絡原氣 등의 차원으로 분화된다.
5. 『난경』 진법의 핵심 논리인 六部는 소문 운기편의 三陰三陽 氣機 모델을 寸口脈에 적용함으로써 立論된 것이다. 삼음삼양의 논리 형식은 內的 五行五臟과 外的 陰陽經絡을 三陰三陽이 총괄하는

것이다.

6. 『난경』의 삼부구후대법은 내의 오장에 상응하는 五臟脈法과 외의 음양에 상응하는 陰陽脈法을 三部九候의 방법과 논리로 총괄한 것이다.
7. 임상 적용에 있어 삼부구후대법은 하위의 음양맥법 및 오장맥법을 운용함에 있어 다양한 차원의 氣化에 상응하는 음양오행의 脈理가 상호 교차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해석방법(看法)을 갖게된다. 삼부구후대법에 진단의 종합적 수행을 總看法이라 한다.
8. 『난경』의 진단원칙은 맥을 위주로 증의 일치를 판단하는 脈證合參으로서, 『내경』의 色脈合參을 배제하지 않으며 크게 四診合參을 지향한다.

이상 결론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익히 알고 있는 것들로서 실제로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는 내용들이다. 『난경』의 괄목할 점은 이러한 개개의 法들을 하나의 큰 틀에 묶어 정합한 체계를 지니는 동시에 실제 임상에 적용하여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유효하고 완전한 체계를 구성하였다는 데에 있다. 『난경』의 기획은 마치 方寸의 寸口 안에 天人을 담아넣으려는 것처럼 遠大하고도 精微하다. 또한 『난경』에서 진법은 그 이론과 실체가 나무와 숲의 관계처럼, 실제 적용과 기초 이론 사이의 관계에서 고정되고 고립된 닫힌 체계들의 대립이 아니라, 움직이고 활동성있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실제 적용에 있어서의 곤란과 변수가 많은 데다 이론 또한 크고도 어려우니 오늘날 진맥이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진맥의 난점은 王叔和가 ‘脈理精微’하다 하고, 李梴이 ‘脈理繁浩’하다 하고, 許浚이 ‘脈道玄微’하다고 한 것처럼 그 자체로 지니는 妙理에서 기원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곧 맥의 특징이며 그것을 바로 알아서 현실에 알맞게 쓰는 것이 診脈家の 임무라고 하겠다. 따라서 『소문』에서 ‘得神’¹¹³⁾을 강조한 이래로 『난경』 역시 精微하고 完整한 法과 理를 보여주면서도 결론적으로 ‘以內知之曰神’이라 하여 이성을 초월하는 경지

113) 박찬국 역주. 황제내경소문주석. 파주. 집문당. 2005. p.261. “得神者昌, 失神者亡.”

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고인은 診脈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학습과 동시에 마음 공부를 강조하였으니, 李梴이 學者에게 “學者要在平時 對先天圖 靜坐調息”¹¹⁴⁾라고 하여 靜坐를 강조한 것이 이 때문이며, 허준이 入神臻妙를 목표로 “精思妙悟, 默識心通”하는 공부를 하라¹¹⁵⁾ 주문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References

1. 박찬국. 고 덕산 박찬국교수 서거 10주기 추모 문집. 문집발간 및 학술세미나 준비위원회. 2019.
2. 김용진 윤창열 편저. 난경연구집성. 대전. 주민출판사. 2007.
3. 柳長華 主編. 王九思 等 輯. 難經集注.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2016.
4. 張世賢 編. 王叔和 著. 校正圖註難經(圖注難經脈訣). 台南. 大孚書局. 1977.
5. 陳夢雷 等 編. 滑壽 著. 扁鵲難經(醫部全錄 卷 2책).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6. 윤창열, 이남구, 김진호 편역. 滑壽 著. 難經本義. 대전. 주민출판사. 2003.
7. 黃維三 著. 難經發揮. 台中. 中國中醫學院出版組. 1990.
8.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출판국. 2005.
9. 鄭金生 主編. 劉開 撰. 脈訣理玄秘要(海外回歸中醫善本古籍叢書1).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10. 김용진 등 편역, 張元素 원저. 현도완역 醫學啓源.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p.6-47.
11. 진주표 주석, 허준 저. 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12. 진주표 역해, 이천 저. 의학입문. 서울. 법인문화사. 2009.
13. 李世華 等 主編. 龔廷賢 著. 壽世保元(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4. 박찬국 역주. 황제내경소문주석. 파주. 집문당. 2005.
15. 박찬국. 황제내경소문운기칠편주석. 집문당. 서울. 2009.
16. 조학준. 『난경·58난』의 “傷寒陽虛陰盛, 陽盛陰虛”의 의미와 임상 의의.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4. 27(1).
<https://doi.org/10.14369/skmc.2014.27.1.029>
17. 김현정, 강정수. 『난경·75난』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2(4). pp.189-198.
18. 이종무 외2인. 난경 75난을 이용한 오행침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1. 18(2).
19. 정창현. 『난경』의 오행생극이론 활용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4. 17(1).
20. 백상룡, 박찬국. 난경의 기경팔맥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4. 17(1).
21. 남두열, 김태희. 『난경』에서 按脈의 輕重에 따른 오장배속방법에 대한 『맥경』과의 비교 연구.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992. 13(1)
22. 김영운. 난경 수혈론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정보학회지. 2009. 15(1).
23. 안철우 외6인. 『영추』, 『소문』, 『난경』에 나타난 오수혈의 개념에 대한 고찰. 대한약침학회지. 2008. 11(1).
24. 윤중화 외2인. 난경의 장부허실에 따른 침구보사법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1. 18(6).
25. 박은주, 조명래. 오행침법의 운용에 대한 난경 「육십구난」과 「칠십오난」의 비교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1. 18(6).

114) 진주표 역해, 이천 저. 의학입문.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458. “學者要在平時 對先天圖 靜坐調息 觀氣往來 臨時又有屏氣不息之敬則是 以吾心之太極而驗 彼身之太極 不離乎氣血 不離乎氣血 乃先天之靈也.”

115) 김공빈 편역, 허준 저. 찬도방론맥결집성. 서울. 현동학당출판국. 2005. p.568. “苟能精思妙悟, 默識心通, 自得於手, 而應之於心, 則三指之下, 尺寸之中, 玄機畢露, 衆妙俱呈, 何必飲上池之水, 託異人之夢, 而爲奇哉.”

26. 송미령, 김용진, 윤창열. 難經中 疾病條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5. 3(2).
27. 박찬국. 음양과 오행의 관계. 대한한의학원전 의사학회지. 1994. vol.8.
28. 최동현. 삼초와 원기, 진액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9. 장우창. 『찬도방론맥결집성』의 장원소 「진맥입식해」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9. <https://doi.org/10.14369/jkmc.2019.32.1.001>
30. 장우창. 『난경』의 關格 인식.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24(6).
31. 徐哲學, 騰晶. 基于全息理論的難經脈診“獨取寸口”分析. 江蘇中醫藥. 2012. 44(4).
32. 李吉武, 彭万年. 從元氣升降角度析識脈象之理. 國醫論壇. 2014. 29(6). <https://doi.org/10.13913/j.cnki.41-1110/r.2014.06.007>
33. 劉極. 淺析『難經』中的整體觀. 浙江中醫雜誌. 2006. 41(6).
34. 劉瑞, 鮑艷學, 花寶金. 『黃帝內經』中氣機升降理論思想的探討. 世界中醫藥. 2014. 9(3). <https://doi.org/10.3969/j.issn.1673-7202.2014.03.010>
35. 李霞. 『難經』脈診理論貢獻探析.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3. 19(5).
36. 宋尚晉, 阮亦, 倪喆鑫, 岳小強. 『難經』對人之平脈的認識. 時珍國醫國藥. 2014. 25(11). <https://doi.org/10.3969/j.issn.1008-0805.2014.11.069>
37. 翟雙慶. 從脈法看『傷寒雜病論』與『難經』的學術關係. 國醫論壇. 1987. 제2기.
38. 郭文娟. 論『難經』獨取寸口脈法的學術內涵. 時珍國醫國藥. 2012. 23(7). <https://doi.org/10.3969/j.issn.1008-0805.2012.07.119>
39. 王慶國. 從『內經』『難經』『傷寒論』『金匱要略』『脈經』看獨取寸口診法的淵源與發展. 北京中醫藥大學學報. 1997. 20(5).
40. 劉艷, 李毅. 初探『難經』對脈學的學術貢獻. 長春中醫藥大學學報. 2006. 22(4).
41. 周蓉, 郭文娟. 關於『難經』獨取寸口的學術意義探析. 中國中醫藥基礎醫學雜誌. 2012. 18(10).
42. 徐碧云, 陳偉清. 寸口脈三部分屬理論與臨床應用. 四川中醫. 2017. 35(8).
43. 扈培增. 司內揣外辨證觀淺析. 山東中醫雜誌. 2011. 30(4).
44. 馬勝, 扈培增, 姜建國. 淺談司內揣外辨證觀. 河南中醫. 2015. 35(4). <https://doi.org/10.16367/j.issn.1003-5028.2015.04.0285>
45. 余致力, 李敏. 基于陰陽理論分析『難經』脈法與人迎寸口脈法的關係及應用. 中醫藥導報. 2020. 26(9). <https://doi.org/10.13862/j.cnki.cn43-1446/r.2020.09.017>
46. 全會南. 『難經』陰陽脈法解析. 安徽中醫藥大學學報. 2015. 34(5). <https://doi.org/10.3969/j.issn.2095-7246.2015.05.001>
47. 徐碧云. 『難經』陰陽脈辨析.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3. 19(10).
48. 蔡超產, 孫鴻昌, 李敏. 『難經』與易水學派.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教育. 2016. 14(21). <https://doi.org/10.3969/j.issn.1672-2779.2016.21.016>
49. 鄭齊. 淺析『醫學發明』五邪相干論. 中華中醫藥雜誌. 2013. 28(4).
50. 岳曉莉, 秦林, 騰佳林, 魏曉廣, 姜萍, 張甦穎. 論“內生五邪”的致病特點. 山東中醫藥大學學報. 2008.
51. 楊威, 王霜, 屈伸, 孫紅, 張宇鵬, 于崢. 『仁齋直指方論』“五臟所主”學術思想研究.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20. 26(2).
52. 全會南. 『難經』正經自病與五邪所傷解析. 雲南中醫藥學院報. 2016. 39(2).

<https://doi.org/10.19288/j.cnki.issn.1000-2723.2016.02.011>

53. 眞氣正氣與元氣(原氣)考辨. 金芳芳 蔡永敏.
中華中醫藥雜誌. 2019. 34(1).